

# 혁신도시 '악취' 뿌리 뽑는다

### 전북도, 적극적인 대처로 눈에 띄게 대폭 감소 모니터링 결과, 무취일수 전년 대비 50.4% 증가 주민과의 정기적인 소통·기관간 협업이 밑거름

올해 여름철(6~8월) 혁신도시 주민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발 빠른 현장대응에 나선결과 악취발생일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악취모니터단 20명이 매일 악취발생 유무에 대해 올해 8월까지 모니터링 한 결과, 전년 대비 월 평균 무취일수가 3일 증가한 15일이었고, 유효악취발생일수 또한 1.8일로 3일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민원발생이 많은 하절기에는 지난해 무취일수 11.3일보다 50.4% 증가한 17일, 유효악취발생일수는 4.7에서 1.8일로 79.4%가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전북도는 올해 혁신도시 악취저감을 위해 예산과 달리 도 관련 실·국과 협업하여 축산시설 밀폐화·탈취시설 설치 및 정보통신기술(ICT) 축산악취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172억원을 투자해,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퇴·액비화시설 밀폐

화·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축산농가 안개분무시설 설치사업 등에 사업 착공 또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월·주 1회(하절기) 시·군과 합동으로 주·야간 단속을 통해 98개소를 점검하여 23개소(교발 20, 과태료 3)를 적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했고, 퇴·액비화시설의 폭기·교반시설로 인해 악취발생이 심해지는 오후시간대(16시 이후) 및 야간에 가동을 자제하는 등의 행정적인 조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함에 따라 악취 발생시설 소유주의 악취저감에 대한 인식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도에서는 혁신도시 지역주민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기관 협의체, 민·관 협의체 및 모니터링 간담회 등 총 5회에 걸쳐 도 정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파트별 게시판 및 스마트폰 밴드에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향후에도 전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저감사업을 완

료하고, 혁신도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불시점검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사업 완료 후 악취검사 등 시설개선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하는 등 신규사업도 발굴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악취유발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관련 법 위반시 엄격하게 조치해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정도 적극 이행해, 올해 10월 중 4개소의 퇴·액비화시설에 대해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악취저감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간 협업하고, 시설 완료 전까지는 행정에서 보다 발 빠른 현장 대응을 통해 악취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현업측사 매입 국비가 확보되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공조하는 등 오염원의 근원적 제거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 현장 의견 공유로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추진

### 전북교육청, 학교행정실 직원 연수 개최... 520여명 참여

도내 학교근무 지방공무원들이 전북교육정책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도교육청은 24일과 25일, 그리고 30일 세 차례에 걸쳐 '2019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정책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정

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24~25일 열리는 연수에는 6~7급 400명, 30일 교육청은 24일과 25일, 그리고 30일 세 차례에 걸쳐 '2019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매월·주 1회(하절기) 시·군과 합동으로 주·야간 단속을 통해 98개소를 점검하여 23개소(교발 20, 과태료 3)를 적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했고, 퇴·액비화시설의 폭기·교반시설로 인해 악취발생이 심해지는 오후시간대(16시 이후) 및 야간에 가동을 자제하는 등의 행정적인 조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함에 따라 악취 발생시설 소유주의 악취저감에 대한 인식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도에서는 혁신도시 지역주민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기관 협의체, 민·관 협의체 및 모니터링 간담회 등 총 5회에 걸쳐 도 정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파트별 게시판 및 스마트폰 밴드에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향후에도 전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저감사업을 완

이다. 특히 인문학 특강·예술 공연을 더함으로써 인문학적 소양과 감성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문학 특강과 공연 등이 더해진 지난해 지방공무원 연수 만족도가 높았다"면서 "올해 역시 학교 구성원과의 열린 소통으로 전북교육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성역량을 제고해 활기찬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전북교육청, 계약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 나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계약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25~26일까지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은 계약업무 제도 개선 및 우수사례를 공유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마련했으며,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창의적인 업무사례 발굴로 지역교육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계약 실무의 이해 ▲계약업무 정보 공유 ▲사례발표와 분임토의 ▲지정정보처리장치(S2B)의 이해 및 활용 ▲특강-나는 잘 살고 있는가 등이다. /장은성기자

강사로는 예산회계실무카페 홈페이지 강서구청 최기용 사무관이 강의를 진행하며, 특강에는 시인이자 상담 및 자아개발프로그램 트레이너 송희가 강사로 나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계약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창의적인 업무사례를 공유해 지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전북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 전국체전 격려금 기탁 이어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지역본부가 전국체전 참가 전북 선수단에 격려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 체육회를 찾은 최규명 LX 전북본부장은 "전북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조금이나마 자랑스런 선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형원 도 체육회 사무처장은 "정당당한 승부로 도민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 체육에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앞서 전북체육육성협의회(구 전북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가 전국체전 참가 전북 선수단에 격려금을 기탁했다.

체육동우회·회장 유학봉)와 이용선 전 전북세파타크로협회 회장, 김민희 전주시댄스스포츠연맹 회장 등도 "전북 체육 위상을 높여달라"며 소중한 격려금을 전달했다. /장은성 기자

이번 제100회 전국체전은 10월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일원에서 열리며 이번 대회에 전북 선수단은 약 1,600명(선수 1,217명·임원 383명)이 출전한다. /장은성 기자

## 전북연구원, '포용국가와 지역여성정책' 포럼 개최

### 포용적 여성정책 관심 환기·지역사회 필요에 대응한 실천방안 도출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정책포럼'이 27일 오후 2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2층)에서 시·군 여성정책 분야 공무원,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도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포용국가와 지역여성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포럼은 여성의 현실과 포용국가의 성평등정책을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포용적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여성정책의 필요에 대응하는 세부과제와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포용국가와 성평등 정책'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전희진 부연구위원(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의 '포용국가와 여성의 불안정 노동', 정유진 교수(전북대학교 아동학과)의 '전라북도 보육현황 및 개선방향'이라는 두 가지 주제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정현백 전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현실, 성평등 정책의 주요 이슈,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 지역에서의 성평등 실천전략과 더불어 향후 지역사회에 필요한 과제들을 소개한다. 제2주제 발표자인 전희진 부

연구위원은 여성노동 현실을 토대로 전북지역 여성 노동을 분석하고, 지역여성정책의 관점에서 포용적 정책모델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본다.

제2주제 발표자인 정유진 전북대 교수는 보육의 사회적 중요성과 성평등 문제를 전북의 보육현실에 연계해 살펴본다.

이후, 이수인 소장(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주재로 이윤애 센터장(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엄영숙 교수(전북대), 김지혜 회장(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조경옥 연구위원(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이해숙 교수(한일장신대)가 참여해 지역사회에서의 성평등정책 실천 방안, 여성일자리 창출과 불안정 여성노동 해소를 위한 실천방안, 성평등에 기반한 저출산 해소 및 돌봄 문화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 새만금개발청, 산단 장기임대용지 총 100만㎡ 조성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66만㎡ 조성을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 34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청은 24일 한국농어촌공사와 16만5000㎡(170억원)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총 66만㎡를 확보했다.

또 정부예산(안)에 34만㎡(280억원) 확충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까지 총 100만㎡가 차질 없이 조성될 예정이다. 장기임대용지 사업은 새만금 산단

내 입주희망 기업에 대해 국가에서 1%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0년간 사업 부지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부지 조성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규모는 100만㎡로 총사업비는 1080억원(국비 80%, 지방비 20%)이다.

개발청에 따르면 장기임대용지 관련 투자협약은 최근 1년간 총 22건에 1조 634억원으로, 11개 기업이 1년 이내에 입주 계약을 완료해 협약 체결 이후 투자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특히, 투자협약 기업 중 전기차·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 업종이 55% 수준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 업종은 전기차 6건, 재생에너지 6건, 금속가공 3건, 기타 7건 등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산단에 기업들의 관심 및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과급 효과가 큰 자동차와 재생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당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학장(강정원)

강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차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강사양성

※ 참고

-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희망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 ④ 강사양성으로 제2의 직업의 길이 있습니다.
- ⑤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텍시양복점 건물)  
(H · P : 010-2078-481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